

지역 매 아리

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만 63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날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살갓대 대비 낮게 평가됐던 임야와 전원주택지 조성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구 명동리류 인근 탐앤탈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7만 2천 원이다. 최저 지가는 입안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5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joeng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ci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인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자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재향군인회 태인중 안보 교육 실시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윤재동)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날 31일 태인중학교(교장 송기주)에서 2~3학년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강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재향군인회 안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종석 교수를 초빙해 '지상군 대한민국의 평화로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6·25전쟁과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목숨을 바친 젊은 국군 장병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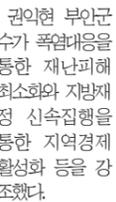
재향군인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안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무더위쉼터 관리에 만전을”

권익현 부안군수, 월레조화서 재난피해 최소화 등 당부



권익현 군수는 3일 열린 6월 중 월레조화에서 “지난 5월에 벌써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며 “기름과 흙수 등



각종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단 한 곳도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에 대비해 노약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무더위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군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해충 방역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연말집행에 따른 낭비를 방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3주년 현충일을 맞는 달”이라며 “애국선열의 그 숭고하신 정신을 기리고 나라를 수호했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금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국기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신운천 생태하천·지방정원 현장점검

부안군은 신운천 생태하천·지방정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신운천에 최근 설치된 아자메트, 보안등, 휴먼지털이기 등 이용객들을 위한 작은 관심과 변화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만큼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땅인 만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임원택 산업건설국장은 지난날 31일 신운천 생태하천 주민 편의시설 점검 및 신운천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

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현장(585여 원)을 점검했으며, “신운천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천임을 인식하고 광범함을 넘어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운천은 부안읍 봉덕리에서 시작하여 하장천으로 합류되는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하천 좌·우로는 2.1km에 이르는 낙우송 산책로가 휴길로 조성되어 있으며, 운동시설, 쉼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많은 탐방객들로 붐비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천이다.

부안군은 부안읍과 접근성이 뛰어난 신운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60억원)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31억원) ▲부안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95억원) ▲봉덕소하천 정비사업(90억원) ▲선운소하천 정비사업(100억원) ▲해위협지구(209억원)이며, 2023부안 새마을 세계스카우트 캠프대회대회 이 전인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폭염취약계층 특별 관리로 인명 피해 최소화 ‘집중’

부안군, 재난도우미 운영

부안군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염일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도우미 등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소관 업무 부서별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보건소 건강관리지원반을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 특별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재난도우미를 가동 시작했다.

재난도우미는 읍면 사회복지사 및 보건소 건강보전 전문인력, 사회복지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총 64명이 관내 폭염취약계층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여름철 건강관리 및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폭염특보 발효시 취약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출동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관련 부서들이 폭염대응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대응과 피해복구 지원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난도우미를 통해 취약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적정 양분관리를 위한 대표 필지 중심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 대표 필지 선정 통한 작물 적정 양분관리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적정 양분관리를 위한 대표 필지 중심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재배유형(논, 밭, 과수)과 토양특성(광탄, 비광탄)을 고려해 연간 480필지, 5년간 2400필지의 대표 필지를 선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토양 영양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통해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분석항목은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이온성암모늄(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 전기전도도(EC) 등이다. 토양분석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작물재배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휴토타(www.soildata.go.kr)를 통해 누구나 지역별 실시간 농경지의 양분분포와 농경지 비옥도 변화를 알 수 있다.

구축된 자료는 땅에 알맞은 작물 선택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대표 필지 중심 토양 검정 사업을 통한 체계적 양분관리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 건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양 검정 외에도 토양중금속과 축분액비 분석을 연중 5천 점 이상 실시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특별예방 간담회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3일 고창군장애인협회사무실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기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2018년도 하반기까지는 주춤하다가 2019년도 5월 현재 갑자기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창군청 장애인 시설택당과 고창군 장애인 성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장 및 시각장애인, 농인인, 꿈드레장애인협회장, 장애인복지관장과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경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고창군 장애인 성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해 이를 기반으로 경찰, 군청, 장애인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각 기관, 단체별로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 역할 분담을 정하고 실질적인 실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